



임실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임실군은 19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 희망풍차 결연세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임실군민 2,225명에 대해 모금액 8,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심민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력자 지원, 마스크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치며 임실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준 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특별회비 전달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전춘성 진안군수는 19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특별회비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양복인 대한적십자 봉사회 진안지구협회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지역 취약계층과 재난 이재민의 구호 활동,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 긴급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을 돕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주민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19일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은 적십자 회비모금에 군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열어붙은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광수 의장은 "나눔을 실천해 기적을 만드는 일에 진안군의회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희망전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재해 이재민,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 지역보건·의료·혈액사업과 같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의 건승을”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실군산림조합방문 임직원 격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인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신속년 새해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의 건승을 바라고 지난 한 해 노고에 대한 격려와 2021년 계획한 목표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금융사업은 전임직원이 동참하여 안정적 수익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규모화에 힘을 모아줄 것과 꿈은 가진 순간부터 미래는 시작되고 언젠가는 이를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분명 꿈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상호금융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조합의 어려운 경영현황에 격려로 회원 지원자금 삼천만 원을 쾌히 지원하여 임직원을 격려했다.

최 회장은 업무 보고 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판매센터를 방문해 임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고 칭송했으며 앞으로 양질의 물품을 공급해 신뢰받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조합정사를



를 이곳으로 이전해 조합원이 원스톱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중앙회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극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코로나 19에 힘든 상황 잘 극복하고 추운 날씨에 임직원들의 건강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노인요양병원 2곳 화재안전점검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9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긴급점검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점검에는 소방서 화재안전정보 조사반이 투입돼, 노인요양병원 등 2곳에서 ▲비상구 출입문 및 피난시설 등 사용여부 확인 ▲경보설비의 유지·관리상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시설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박덕규 서장은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늘곳간영농조합법인, 장수군에 성금 등 기탁

하늘곳간영농조합법인(대표 유영록)은 지난 19일 장수군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70만원과 사과즙 20박스, 해독주스 10박스를 장수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들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군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유영록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하늘곳간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서, 대형화재 예방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19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2021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방호구조과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8명과 간사인 예방안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됐다.

선정 기준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총 8개소의 공장, 요양병원 등 중요도가 높은 대상이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 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말한다. 심의 결과 2021년 중점관리대상은 5개소가 선정돼 1년간 화재 예방을 위한 간부 책임제,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등을 추진하면서 중점관리하게 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노인복지 보철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2월 17일까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틀니)가 필요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치아상실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강건강기능을 회복시켜 자신감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지금까지 1,257명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 시술 대상자 중 기존 시술한 의치(틀니)가 헐거워지거나 틀니의 치아 탈락 등 손상돼 수리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도 지원하나, 기존에 지원받았던 시술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개인별 1차 검진과 의치 사용법 등 교육을 시행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의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담당 구강보건실(063-620-7957~8)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방역복 240벌 전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희운)는 AI확산방지를 위해 임실군에 방역복 240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2월 임실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의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희운 지부장은 “메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AI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농협 역시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33농가 1689만1000수가 살처분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